

주제어: 인터넷 뉴스 이용, 뉴스 주제, 이용자 특성

## 인터넷 이용자의 뉴스 주제 이용패턴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 혜 경 · 박 선 희

(부경대학교 교수)

(조선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제 뉴스 이용행위 자료를 토대로 뉴스주제별 이용 정도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은 인터넷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전통적 뉴스 매체의 그것보다 적었다. 이용자들은 그 적은 시간마저도 대부분 개인적 흥미를 다루는 특히, 연예와 스포츠와 같은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뉴스를 이용하는 데 집중적으로 할애했다. 반면 '정치/경제/국제' 뉴스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 정보를 전달하는 '의견' 등 공적 뉴스를 이용한 시간은 전체 뉴스 이용시간 중 30%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포털사이트만을 이용하는 집단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맞춤뉴스를 재단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도 뉴스 주제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이용자 분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적 뉴스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의 특성이나 개인적 흥미와 오락 뉴스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의 특성은 대체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의 뉴스 이용시간을 뉴스 주제별로 배분하는 데 인구사회학적 뿐만 아니라 시민적 관여수준에서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시민적 관여수준의 경우 그 차별성은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에서 전제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 연예/스포츠 등의 오락뉴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용자들의 정치관심과 참여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1. 문제 제기

최근 뉴스 매체로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는 반면, 신문 구독률과 TV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황용석 · 윤선희 · 이원섭 · 안계현, 2006). 인터넷의 부상은 뉴스를 전달하는 통로 증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뉴스 매체로서 인터넷은 전통적인 매체보다 뉴스 선택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더 큰 통제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반현 · 권영순, 2007; Pew Research Center, 2006; Tewksbury, 2003)에 의하면 향상된 통제력을 토대로 인터넷 뉴스 독자들은 뉴스 편집자나 생산자가 제공하는 주제와 단서들을 따라가 기보다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 뉴스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뉴스 편집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와 뉴스 소비자들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주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매체의 뉴스 편집자들은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패키지화하여 제공한다. 신문을 읽으면서, 혹은 TV 뉴스를 접하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관심사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하기 어렵다.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패키지화하지만, 전통적인 매체의 뉴스 편집자들의 우선적인 관심은 주로 공적이거나 시사적인 이슈에 두어진다. 정치, 경제 국제 영역 등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들이 신문의 1면과 TV뉴스 순서에서 맨 처음 보도되는 관행은 공적 혹은 정치 영역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진 현재에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뉴스 매체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공적 영역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고, 그 정보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식견있는 시민들을 전제로 한다. 전통적인 매체의 뉴스 편집자들이 가치를 두는 뉴스 주제는 바로 이들 식견있는 시민들이 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전통적인 뉴스 매체 이용과 시민적 관여 수준과의 관계는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입증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뉴스 매체 이용은 시민들에게 공적 영역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영역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참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동기화하고 용이하게 만든다. 한 마디로 뉴스 매체의 이용은 시민들이 공동체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이 다시 시민들의 민주적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강내원, 2004; 한혜경·이상기·오창호, 2006; Norris, 2000; Scheufele, Nisbet, & Brossard, 2003).

그렇다면 뉴스 편집자가 아닌 이용자 개인의 뉴스주제 선택권이 강화되는 인터넷에서도 뉴스 이용과 시민적 관여의 긍정적 관계를 가정할 수 있는가? 뉴스 매체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주로 뉴스 공급의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다. 인터넷은 기술적으로 기존의 그 어떤 매체보다 다양한 주제와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공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제한된 정보와 시각, 그리고 일방적인 전달에 머무는 기존 뉴스 매체의 한계를 넘어 저널리즘 매체로서 인터넷이 민주주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것이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의 토대이기도 하다.

반면 뉴스 이용의 차원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낙관적인 기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풍부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 공적 뉴스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매체에서의 공적 뉴스 소비와 시민적 관여 수준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연구결과들의 축적은 미미한 상태이다. 그나마 이루어진 연구들 대부분은 이용자들의 실제 행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기억에 의존한 설문 자료를 토대로 한다. 시청행위 연구에서도 보고하듯이 기억에 의존하는 자료는 실제 행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우며(Webster & Lichty, 1991), 더욱이 인터넷처럼 선택범위의 폭이 넓은 환경에서는 그 괴리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한혜경, 2001).

이용자들의 실제 행위 측정자료를 토대로 인터넷 뉴스 주제 선택 패턴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텍스버리(Tewksbury, 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온라인 뉴스 이용자들은 대부분 전통적 매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며, 공적 사안에 관한 뉴스를 거의 선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생각보다 협소하여 몇몇 특정 주제에 편중되는 소비양태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그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인터넷이 전통적 매체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론을 제시한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뉴스 주제 이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실제 행위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 축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국내 인터넷 뉴스 이용 환경은 미국의 그것과 다른 양태를 띠고 있다. 전통적 뉴스 매체의 온라인 사이트가 강세를 보이는 미국과 달리 포털사이트들이 인터넷 뉴스 이용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털 뉴스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주제의 뉴스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포털사이트에서 여타 뉴스 사이트보다 뉴스 주제 선택에서 더 큰 선택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선택성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구체적으로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은 어떤 주제들의 뉴스를 주로 소비하며, 사이트 유형별로 뉴스 주제들의 이용정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뉴스주제와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선택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용자 특성은 무엇인가? 특히 시민적 관여 수준을 포함하여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정도를 설명하는 데 유용했던 요인들은 인터넷 뉴스 이용정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그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이 어떻게 뉴스주제를 이용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분석

### 1) 인터넷 뉴스 이용의 특성

인터넷 뉴스 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이다. 인터넷에서는 뉴스접근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없으며, 무수히 많은 뉴스들이 하이퍼텍스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뉴스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신만의 뉴스지면 혹은 영상을 재단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이용자들이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전망이 존재한다(박선희, 2002; 윤영철, 2001; Newman, 2001).

먼저,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소수의 뉴스 매체들이 뉴스 통로를 독점하고 상업적 이윤추구에 몰두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적 영역에 대한 무관심 혹은 냉소주의를 확대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인터넷은 공적 영역에 관한 다양한 대안적인 시각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뉴스 생산과 유통, 그리고 토론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뉴스 선택권의 강화가 오히려 뉴스 주제, 시각 등의 편식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공적 영역의 기반 약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다양한 시각을 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뉴스 이용의 편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먼저 이용자에 따라 서로 다른 주제와 시각을 선택함으로써 이용자간에 공통분모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집단들을 양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이 전체적으로 공적 영역에 관한 뉴스를 기피하고 재미나 흥미위주의 뉴스만을 소비하는, 그래서 공적 영역에 대한 무관심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인터넷 뉴스 이용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체로 공적 뉴스 소비에서 후자의 전망, 그 중에서도 이용자 집단 전체적으로 공적 뉴스들을 기피하는 유사한 선택을 한다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이용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텍스버리(2003)는 선택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뉴스 이용패턴의 두드러진 특성은 뉴스 사이트 선택에서나 뉴스 주제 선택 모두에서 이용자들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뉴스 이용자 대부분이 오프라인 언론사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며, 뉴스 주제 선택에 있어서도 이용자들은 공통적으로 전국/로컬 정치, 국제, 의견 등 공공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에 매우 적은 시간을 소비할 뿐이다. 특히 설문조사 자료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들의 트래킹 자료에 나타난 이 주제들의 소비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고 그는 주장한다. 국내 이용자들의 행위 측정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박선희(2004)도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치뉴스 이용패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은 전체적으로 정치뉴스를 별로 이용하지 않으며, 다양한 시각의 뉴스사이트들을 동시에 이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대선시기에 소수이지만 인터넷 정치 뉴스의 중이용자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시민적 관여수준이 높고 전통적 매체의 뉴스 이용량 역시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치 뉴스이용에서 이용자들간 극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인터넷 뉴스 이용환경은 이들의 연구와 또 다른 환경을 제공한 다. 인터넷 뉴스 이용에서 포털사이트의 압도적인 집중현상이 그것이다. 2006년 6월 코리안클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터넷 뉴스/미디어 서비스 방문자 중 97.6%가 6대 포털 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인터넷 뉴스/미디어 서비스 페이지뷰 중에서 6대 포털뉴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72.8%에 이르고 있다(코리안클릭, 2006.06). 이와 대조적으로 오프라인 뉴스 조직의 온라인 사이트나 독립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이용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 이용에서 이제 포털은 단순히 거쳐 가는 관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자들의 뉴스 향배 여정에서 출발점이자 종착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임종수(2005)는 이와 같은 포털사이트로의 이용자 집중 현상의 원인으로 편리한 접근성, 대중적 개방성, 그리고 속보성 등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독자적인 취재·편집과정을 거친 것이 아

니라 대부분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것들을 세분화된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이다. 이곳에서 이용자들의 선택은 어떤 언론사의 기사인가가 아니라 뉴스 주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전문적 언론인들의 편집 결과물이 아닌 이용자의 개인적 선택에 의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선택에 이용자 외적 요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메인뉴스 혹은 박스뉴스의 형태로 여전히 이용자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특성에 맞춰 자신들의 기사를 가공하지만 여전히 공적이고 시사적인 뉴스가 메인으로 올라오는 오프라인 언론사의 뉴스 사이트와 달리,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나 박스뉴스의 경우는 연예나 스포츠, 사회, 문화와 같이 개인적 흥미 위주 뉴스들의 비중이 더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박광순·안종목, 2006; 반현·권영순, 2007; 최민재·김위근, 2006). 최민재·김위근(2006)은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박스기사와 랭킹뉴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뉴스 매체와 유사하게 포털사이트도 이용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뉴스 매체처럼 의제설정의 힘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행위자료가 아닌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반현·권영순(2007) 역시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 주제 선택은 오락이 주를 이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선택한다고 응답자들이 제시한 주제는 연예, 사회, 문화, 스포츠, 경제 순이었으며, 인터넷신문에서도 사회, 연예, 문화, 정치 경제 순이었다. 물론 전통적 뉴스 매체라 할 수 있는 신문과 방송에서도 정치, 경제, 국제 등 공적 뉴스의 순위가 가장 우선은 아니었지만, 인터넷의 경우보다 상위 순위를 차지한다. 성동규·김인경·김성희·임성원(2006)은 뉴스 주제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내에 존재하는 뉴스 사이트별로 이용자들의 이용동기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했다. 뉴스 이용자들은 크게 참여적 오락추구, 참여적 정보추구, 습관적 휴식추구, 접근편리추구 등 네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각 집단별로 포털사이트, 신문사 사이트, 방송사 사이트,

독립인터넷 언론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의 경우는 참여적 오락추구와 습관적 휴식추구 집단이, 그리고 신문사 사이트의 경우에는 참여적 정보추구 집단의 이용의사가 높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국내 인터넷 뉴스 이용 연구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포털뉴스의 이용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포털뉴스를 왜,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뉴스 매체로서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포털뉴스가 인터넷 뉴스 이용을 압도하고 있다고 해서 포털뉴스 이용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 경우, 인터넷 뉴스 이용의 모습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용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프라인 언론사의 뉴스 사이트들은 인터넷 뉴스 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언론사 뉴스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또한 포털 뉴스 이용자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인터넷 뉴스 이용의 특성을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털만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포털과 다른 유형의 뉴스사이트를 중복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선택을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중복이용자들이 포털과 다른 유형의 뉴스 사이트에서 선택하는 주제들이 유사한지 아니면 차별적인지 역시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연구문제 1〉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주제 이용패턴은 어떠한가?

1-1) 포털만 이용하는 집단과 중복이용자 집단은 뉴스 주제별 이용정도에서 차이가 있는가?

1-2) 중복이용자 집단은 포털과 다른 유형의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 주제별 이용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 2) 인터넷에서의 뉴스 주제선택과 이용자 특성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에서 뉴스 매체 선택과 뉴스 이용량은 이용자에 따라 차별적이다. 기존 연구들(강내원, 2004; 김세은, 2006; 한혜경·이상기·오

창호, 2006; Hart, 2001; Norris, 2000, Poindexter & McCombs, 2001)은 성,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뉴스 매체와 뉴스 이용량이 다름을 보고해왔다. 남성, 중·장년층, 높은 교육 수준 등은 신문을 선호하는 집단이며, 상대적으로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이용자들은 시민적 관여 수준, 즉, 정치에 대한 관심, 효능성, 의견지도자 성향과 참여 수준 역시 높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시민적 관여수준은 정치관심이나 정치효능성, 정치참여 등 정치정향이나 정치행위를 포함하지만, 수많은 미디어가 경쟁하고 있고 뉴스 소스 역시 다양해진 환경에서는 의견지도자 성향도 시민적 관여수준을 표현하는 지표로 포함시킬 수 있다. 뉴스 중요도 평가와 해석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동체 시민으로서 높은 관여도를 전제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 연구에서는 뉴스 주제 선택이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는 전통적 뉴스 매체가 전달하는 주요 내용이 개인적인 관심사보다는 공동체의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한다. 물론 신문과 방송 뉴스 역시 개인적 흥미 위주의 내용을 전달하는 연성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박광순·안종목, 2006). 하지만 전통적 뉴스 매체는 여전히 정치, 경제, 국제 등과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비중있게 다루며, 사실 및 칼럼과 같은 의견 기사를 통해 공적 뉴스들에 대해 제기되는 해석틀들을 제공한다. 더욱이 전통적 뉴스 매체는 뉴스 주제 혹은 내용 선택에 대한 이용자 통제력을 제한하는 매체라는 형식적 특성을 지닌다. 때문에 공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고 사건사고, 문화, 그리고 스포츠와 연예 등과 같이 비공공적이면서 개인적 흥미를 끄는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바로 이러한 형식적·내용적 특성이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은 공적이거나 시사적인 주제의 뉴스 소비를 포함한다는 전제를 성립시키며, 그 결과 뉴스

이용량과 시민적 관여수준을 연계시키는 논리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sup>1)</sup>

인터넷에서의 뉴스 소비에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인터넷에서의 뉴스 소비 과정은 전통적 매체의 그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면과 시간 등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은 전통적 매체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그리고 다양한 시각의 공적이고 시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매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 중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통적 매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선택성에 제한이 없는 매체의 특성상 공적인 뉴스를 비선택적으로 혹은 우연히 접할 기회가 차단된다. 윤영철(2001)은, 이처럼 뉴스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필터링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온라인에서는 공적 영역에 관한 정보와 사회적 소수의 목소리가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인터넷은 말할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만, 그것들의 소비를 강제할 수 있는 기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용자의 내용선택성을 제한하는 전통적 뉴스 매체의 경우처럼 인터넷에서도 뉴스 주제와 무관한 전체 이용량 그 자체를 시민적 관여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인터넷에서는 공적 뉴스를 완벽하게 회피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흥미 욕구를 충족시키는 뉴스들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이용과 이용자 특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인터넷이 이용자에게 뉴스

1) 미디어 이용을 정치정향이나 공동체 유대와 연관시킨 논의들은, 공동체 언론이 개인을 공동체에 통합시키는 기제라고 보는 사회학적 논의들과, 정치정향이나 공동체 유대가 미디어 이용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보는 커뮤니케이션학적 논의들로 대별된다. 이처럼 미디어 이용과 시민적 관여수준의 관계에서 무엇이 선행변인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McLeod, Daily, Guo, Eveland, Bayer, Yang, & Wang, 1996 참조). 이 연구는 미디어 이용이 시민적 관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미디어효과연구가 아니라, 다양한 뉴스를 선택하여 볼 수 있는 저널리즘 환경에서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시민적 관여수준이 뉴스주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적 관여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주제 선택의 주도권을 부여함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 뉴스 매체와 유사하게 주로 뉴스이용량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뉴스 주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 그러나 뉴스이용량만을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뉴스 주제를 편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뉴스 이용량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공공적 내용을 담은 뉴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와 개인적 흥미나 오락거리를 담은 뉴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뉴스 사이트 유형별 이용자 특성을 다룬 최근 연구들은 인터넷의 선택성 기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은 다양한 주제의 뉴스들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포털사이트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공적 영역을 다룬 뉴스들을 비중있게 제시하는 대중 매체 언론사의 온라인 사이트, 그리고 주제와 시각 등에서 뚜렷한 특성을 지닌 온라인 독립형 언론사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이트들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박선희(2006)는 인터넷 뉴스 이용자 집단을 포털사이트만 이용하는 집단과 포털과 대중매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함께 이용하는 집단, 포털과 인터넷독립 언론사이트를 함께 이용하는 집단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세 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전통적 뉴스 매체와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민적 참여 수준 등을 보인 집단은 포털과 대중매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중복 이용하는 집단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 뉴스 주제별로 이용자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뉴스 사이트 유형에 따라 전체 뉴스에서 공적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뉴스 주제별로 이용정도가 차별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기대하는 뉴스 이용과 시민적 참여수준의 관련성 정도 역시 뉴스 주제별로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에 더해 뉴스 매체 이용 요인 역시 인터넷에서의 뉴스 주제별 이용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직까지 일관성있는 결론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기존 뉴스 매체의 이용량과 인터넷 뉴스 이용량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조수선, 2003; 황용석·윤선희·이원섭·안계현, 2006). 이러한 현상을 두고 스템펠 등(Stempel III, Hargrove, & Bernt, 2000)은, 신문열독이든, TV 뉴스시청이든, 인터넷 뉴스 이용이든 뉴스 미디어 이용자는 모두 정보추구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기존 뉴스 매체 이용량이 뉴스 주제별 이용량에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련성을 지닐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박선희(2006)는 앞서 제시한 세 집단별로 기존 뉴스 매체 이용량과의 관련성 정도가 차별적임을 발견했는데, 포털만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기존 뉴스 매체 이용량과 대체로 부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이용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 소비는 주로 비공공적 내용, 그 중에서도 스포츠와 연예와 같은 오락적 내용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뉴스 이용량과 기존 뉴스 매체 이용량간의 부적인 관련성은 더 세밀하게 오락적 뉴스 이용량과의 관련성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정들을 토대로 한다면, 기존 뉴스 매체 이용량 역시 인터넷에서의 뉴스 주제별 이용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 뉴스 매체 이용변인들과 함께 이 연구에서는 뉴스 매체 이용 요인에 한 가지 변인을 더 추가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에서 이미 기술한 것처럼, 뉴스 사이트 유형 그 자체가 뉴스 주제별 이용량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만 뉴스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포털이외의 다른 유형의 뉴스 사이트들도 이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주제의 뉴스를 어느 정도 편향적으로 이용하느냐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시민적 참여수준, 뉴스 매체 이용 요인 등을 인터넷 뉴스 주제 이용정도에 대한 설명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서 뉴스 주제 이용정도는 이용량과 이용비율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용량은 주제별 이

용시간량을 의미하며, 이용비율은 전체 이용시간중 개별 뉴스 주제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용시간량은 그 주제의 뉴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를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지만,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지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오락 뉴스 이용량이 유사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오락 뉴스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와 공적 뉴스 이용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면서 오락 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특성은 다를 수 있다.

〈연구문제 2〉 전통적 뉴스이용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시민적 관여, 뉴스 매체 이용 요인은 인터넷 뉴스 주제 이용정도를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가?

2-1) 인구사회학적 요인, 시민적 관여, 뉴스 매체 이용 요인은 뉴스 주제 이용량을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가?

2-2) 인구사회학적 요인, 시민적 관여, 뉴스 매체 이용 요인은 뉴스 주제 이용비율을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가?

### 3. 연구방법

####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이 연구는 인터넷 뉴스 주제별 이용정도와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 뉴스 이용자 설문조사와 이용자 로그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용자 설문조사는 2006년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인터넷 통계조사회사인 코리안클릭의 패널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 뉴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실시했다. 전체 패널 중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 연령별로 표본을 할당하고 할당기준내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응한 응답자는 총 700명이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실제 인터넷 뉴스 주제별 이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로그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시기는 200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한달이었다. 로그데이터 분석대상은 공적이거나 시사적인 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전달하는 유형의 사이트들로, 즉 포털의 뉴스섹션, 종합일간지, 지상파방송사의 뉴스섹션, 독립인터넷 시사 뉴스사이트 등으로 한정했으며, 경제, IT분야 등 특정 주제의 뉴스만을 제공하는 유형은 제외시켰다. 이는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과의 비교를 위해서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전문지적 성격의 뉴스 사이트들은 이용률이 매우 낮아 분석에서 제외해도 전체적인 선택 패턴 탐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것은 포털의 경우, naver.com, daum.net, nate.com, yahoo.co.kr 등 네 개의 사이트, 종합일간지에서는 chosun.com, joins.com, donga.com, hani.co.kr 등 네 개의 사이트, 방송국에서는 kbs.co.kr, imbc.com, sbs.co.kr 등 세 개 사이트의 뉴스섹션, 그리고 독립인터넷 뉴스사이트에서 ohmynews.com 등이다. 여기서 한 가지 독립인터넷 뉴스사이트에서 오마이뉴스 사이트만을 포함한 이유는, 분석대상 이용자들의 로그데이터에 다른 사이트들의 이용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물론 오마이뉴스의 경우도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한 수는 아니었지만, 이용기록은 존재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700명중에서 분석대상 사이트들에서의 뉴스 주제별 선택을 기록한 로그데이터 분석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응답자 수는 650명이었다. 로그데이터 기록이 남아있는 응답자의 수는 657명이었으나, 포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수는 7명에 불과해, 포털이용자 집단과 중복이용자집단과의 비교가 어려워 최종 분석에서는 이들을 제외했다. 최종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성이 54.0%, 여성이 46.0%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35.7%, 30대가 32.5%, 40대 22.9%, 50대 이상이 8.9%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가 2.5%, 고졸 17.1%, 대학교재학 17.1%, 대졸 52.8%, 대학원 10.6%였으며, 소득수준은 월 200만원 미만이 23.1%,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이 46.7%였으며, 400만원 이상이

30.2%였다.

## 2) 측정방법

### (1) 뉴스주제별 이용정도

아직까지 인터넷 뉴스 주제 유형화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터넷 뉴스 사이트들은 대체로 종이신문의 지면구성을 참고하여 뉴스 주제를 분류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도 대체로 이를 따르고 있다(반현·권영순, 2007; 박광순·안종묵, 2006). 이 연구에서도 인터넷 뉴스 사이트들의 분류방식을 따라, 뉴스 주제를 ‘정치·경제·국제’, ‘의견’, ‘사회·문화·과학’, ‘연예·스포츠’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사이트에 따라 뉴스 주제 분류와 명칭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연구에 포함된 주제들은 분석대상 사이트들이 제시하는 뉴스 범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다.

이에 더해 이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주제를 공적 뉴스와 개인적 흥미 뉴스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했다. 네 가지 주제 중 ‘정치·경제·국제’와 ‘의견’은 공공문제를 다루는 공적 뉴스로, ‘사회·문화·과학’과 ‘연예·스포츠’ 등 나머지 두 주제는 개인적 흥미 뉴스로 분류된다. 물론 정치, 경제, 국제 뉴스들과 사실 등의 의견기사가 모두 공공 문제에 관한 기사들로 구성되거나 혹은 사회, 문화, 과학, 스포츠 뉴스들에서 공적 이슈를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 뉴스의 경우, 인간적 흥미위주의 외신 기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 뉴스의 경우도 공적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종종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류방식이 전적으로 상호배타적이지는 못하다. 이는 개별 기사 내용이 아닌 분야를 기준으로 주제를 분류하는 데서 비롯된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국제 분야의 뉴스들이 다른 분야의 뉴스들에 비해 공공문제를 다룰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이 세 가지 분야를 공적 뉴스로 분류하였다. 인터넷 뉴스주제 이용패턴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텍스버리(2003) 역시 전국 및 지역 정치, 경제, 국제, 의견 기사 등을 공적 뉴스로 분류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그의

연구와 달리 사실과 칼럼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의견기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한 네티즌 토론처럼 사회적 쟁점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탐색할 수 있는 섹션에 실린 것들도 ‘의견’으로 함께 분류하고 공적 뉴스에 포함시켰다. 이 유형의 뉴스는 상호작용적 매체인 인터넷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한다. 또한 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여론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의 뉴스 소비는 단순한 개인적 흥미를 넘어 공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용정도는 크게 뉴스 주제별 이용시간(분)과 이용시간비율로 구성된다. 먼저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개별 주제의 뉴스를 이용한 시간으로 측정했으며, 이용시간비율은 네 가지 주제의 뉴스 전체 이용시간에서 개별 주제의 이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했다.

### (2) 인구사회학적 요인

뉴스 주제별 이용정도에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네 가지 변인을 포함시켰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부터 대학원 이상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소득수준은 월 99만 원 이하부터 600만 원 이상으로 구성된 7점 척도로 측정했다.

### (3) 시민적 관여 요인

시민적 관여 요인은 정치 관심, 정치 효능성, 정치 참여, 의견지도자 성향 등 네 가지 변인들로 구성했다. 먼저 정치관심은 정치 이슈 및 정치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정치 등 시사문제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2007년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측정, 합산평균했다( $r=.66$ ). 응답자들의 정치 관심은 평균 3.37( $SD=.90$ )으로 보통 이상이였다. 정치효능성은 정치와 같은 공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하며, 기존의 정치적 효능성 척도인 밀러와 리즈(Miller & Reese, 1982)의 척도와



크레이그 등(Crag, Niemi, & Silver, 1990)의 척도에서 4개 항목을 선정하여 5점 척도로 측정, 합산평균했다(Cronbach's  $\alpha = .84$ ). 정치효능성의 평균은 3.10 ( $SD = .77$ )으로 보통정도였다.

정치참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공공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해위로서(Scheufele & Eveland, 2001),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 투표, 시민사회단체 참여, 정책비판이나 제안, 사회현안관련 집회나 모임 참석, 사회현안관련 서명 혹은 모금운동 참여 등 5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이 항목들에 대한 참여여부를 '있다'와 '없다'로 측정한 후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을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정치참여로 지수화했다. 응답자들의 정치참여 평균은 1.78( $SD = 1.18$ )이었다. 의견지도자 성향은 시사문제에 대한 의견지도자 성향을 김세은(2006)의 척도를 원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평균했는데(Cronbach's  $\alpha = .88$ ), 응답자들의 평균은 3.00( $SD = .70$ )이었다.

이상의 시민적 관여수준 변인들의 영향력을 해석하는 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네 가지 변인들 모두 상호관련성이 높아 다중공산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sup>2)</sup> 이럴 경우 일부 변인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변인이 통계적 예측에 보다 유용한지에 관한 결과들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탐색적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 네 변인 모두를 포함시켰다.

#### (4) 뉴스 매체 이용 요인

뉴스 매체 이용 요인은 신문열독량, 시사보도프로그램 시청량, 뉴스사이트 이용 유형 등 세 가지 변인으로 구성된다. 신문열독량은 평소 하루 종합일간지를 읽는 시간량(분)으로 계산했다(스포츠 신문 및 온라인에서 신문기사를 보

2) 네 변인 중에서 정치관심과 정치효능성, 의견지도자성향간의 상관계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정치참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관계수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정치관심과 정치효능성의  $r = .63$ , 정치관심과 의견지도자성향의  $r = .63$ , 정치효능성과 의견지도자성향  $r = .60$ 이었으며, 정치참여는 정치관심과  $r = .22$ , 정치효능성과의  $r = .34$ , 의견지도자와의  $r = .33$ 의 관련성을 보였다.

는 시간은 제외함). 응답자들은 신문을 하루 평균 39.1분( $SD = 34.38$ )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보도프로그램 시청량은 평소 하루평균 인터넷으로 보는 시간을 제외하고 TV 뉴스 및 시사보도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량으로 측정했는데,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59.28분( $SD = 47.74$ )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사이트 이용 유형은 포털사이트만 이용하는 집단과 종합일간지 사이트, 방송사 사이트, 인터넷 독립 뉴스 사이트 등 다른 유형의 뉴스 사이트를 포털과 중복 이용하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응답자 650명중에 포털사이트만 이용하는 뉴스 이용자는 445명이었으며, 포털과 다른 유형의 사이트를 중복 이용하는 이용자는 205명이다(종합일간지 사이트 181명, 방송사 뉴스 사이트 43명, 독립 인터넷 뉴스 사이트 11명이며, 이 사이트 유형간에도 중복이용이 존재한다).

### 3) 분석방법

뉴스 사이트 이용 유형별 집단간 뉴스주제 이용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독립표본 t-Test이며, 사이트 유형별로 뉴스 주제 이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대응표본 t-Test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이 뉴스 주제별 이용정도를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 그리고 주제별로 예측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다.

## 4. 분석결과

### 1) 뉴스주제 이용정도

#### (1) 전체 이용자의 뉴스 주제별 이용정도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뉴스 주제를 이용하는 데 하루 평균 5.12분을 소비했다. 비록 설문조사 자료와 실제 행위 트래킹 자료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용자들이 하루 평균 신문을 39.06분 읽으며 시사보도프로그램을 59.28분 시청한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

〈표 1〉 전체 이용자의 뉴스 주제별 이용정도(평균)

	전체	공적 뉴스			개인적 흥미 뉴스		
		정치/경제/국제	의견	소계	사회/문화/과학	연예/스포츠	소계
이용시간	5.12(7.91)	0.85(1.72)	0.81(1.50)	1.66(2.71)	1.09(1.77)	2.37(5.16)	3.46(6.02)
이용비율	1	0.15(.16)	0.15(.16)	0.30(.21)	0.25(.20)	.45(.23)	0.70(.21)

\* 괄호 안은 표준편차

뉴스 이용시간은 기존 매체 뉴스 이용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뉴스 주제별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정치/경제/국제는 0.85분, 의견은 0.81분으로 공적 뉴스를 이용하는 데 1.66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과학은 1.09분, 연예/스포츠는 2.37분으로 개인적 흥미 뉴스를 이용하는 데 3.46분을 소비해 공적 뉴스보다는 이용시간이 많았다. 주제별 이용시간비율은 정치/경제/국제가 0.15, 의견이 0.15로서 이용자들은 공적 뉴스 이용에 전체 이용시간 중 30%를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과학은 0.25, 연예/스포츠는 0.45로 개인적 흥미 뉴스이용은 전체 이용시간중 70%에 이르렀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자들이 하루 중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는 시간은 5분 정도이고, 그 적은 시간을 공적 뉴스보다는 개인적 흥미 뉴스에 할애하며, 특히 연예/스포츠와 같은 오락적 내용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다음으로 뉴스 사이트 이용 유형에 따른 뉴스 주제별 이용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포털만 이용하는 집단과 중복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중복집단은 네 가지 주제의 뉴스 이용량 모두 포털만 이용하는 집단보다 많았다. 공적 뉴스, 특히 정치/경제/국제 뉴스 이용량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값이 가장 컸으며( $t=-6.30$ ,  $p<.001$ ), 연예/스포츠 이용량에서 두 집

〈표 2〉 뉴스사이트 이용 유형별 뉴스주제 이용정도 비교(평균)

		전체	공적 뉴스			개인적 흥미 뉴스		
			정치/경제/국제	의견	소계	사회/문화/과학	연예/스포츠	소계
이용시간	포털	3.55	0.49	0.56	1.05	0.75	1.70	2.50
	중복	8.62	1.63	1.34	2.97	1.83	3.82	5.65
	t값	-6.40***	-6.30***	-5.40***	-7.12***	-6.16***	-3.81***	-5.10***
이용비율	포털		0.14	0.14	0.28	0.25	0.48	0.72
	중복		0.19	0.16	0.35	0.26	0.40	0.65
	t값		-4.58***	-1.16	-4.47***	-.57	3.93***	4.47***

\*\*\* $p<.001$ 

단 차이값은 가장 작았다( $t=-3.81$ ,  $p<.001$ ).

한편 뉴스주제 이용비율에서 두 집단 모두 자신의 뉴스 이용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제는 연예/스포츠로서 포털집단은 전체 시간 중 절반에 가까운 48%를, 중복집단은 40%를 소비했다. 이용시간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또 하나의 주제는 정치/경제/국제였는데, 포털 집단은 14%만을, 중복집단은 이보다 많은 19%를 할애했다. 전체적으로 공적 뉴스를 소비하는 데 포털집단은 전체 시간 중 28%를, 중복집단은 35%를 할애했다. 결과적으로 포털 이외의 뉴스 사이트 중복이용은 공적 뉴스 이용시간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중복집단의 뉴스 사이트 유형별 뉴스 주제 이용정도 비교

중복집단이 포털집단에 비해 공적 뉴스 이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러한 결과에 기여하는 뉴스 사이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포털이외에 뉴스사이트를 이용하는 중복집단이 어떠한 뉴스사이트에서 공적 뉴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응답자 모두는 뉴스 이용시간의 대부분을 포털사이트에서 소비한다. 종합일간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188명)은 자신의 뉴스 이용시간 중 81%를 포털 뉴스 이용에

〈표 3〉 종합일간지 사이트 이용자집단의 사이트 유형별 뉴스주제 이용비율 비교

	정치/경제/국제	의견	사회/문화/과학	연예/스포츠	공적 뉴스
종합일간지	.30	.06	.27	.37	.36
포털	.18	.17	.27	.38	.35
t값	4.47***	-5.57***	-1.10	-2.21	.33

\*\*\*p&lt;.001

할애하며, 방송사 뉴스사이트 이용자들(43명)은 91%를, 오마이뉴스 독자들(11명)은 84%를 포털 뉴스 이용에 할애한다. 그런데 이처럼 포털 뉴스 이용이 압도적이지만, 중복이용자들은 사이트 유형별로 뉴스 주제 선택에서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다.

먼저 <표 3>에서 보듯이 중복집단 중 종합일간지 사이트 이용집단은 포털과 종합일간지에서 공적 뉴스를 선택하는 정도가 다르다. 종합일간지 사이트에서 뉴스를 이용할 때는, 포털에서 선택할 때보다 정치/경제/국제 뉴스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포털에서는 종합뉴스 사이트에서보다 의견뉴스에 할애하는 시간비율이 더 높다. 개인적 흥미에 속하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두 사이트에서의 이용시간비율에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포털과 종합일간지 사이트에서 뉴스 주제 이용비율의 차이는 공적 뉴스에 속하는 두 주제에서만 나타난다.<sup>3)</sup>

다음으로 방송사 사이트 이용집단이 포털과 방송사 사이트에서 차이를 보이는 공적 뉴스는 의견이었다. 포털에서 의견 뉴스에 할애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개인적 흥미 뉴스의 경우, 방송사 사이트에서는 사회/문화/과학을,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스포츠를 선택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3) <표 3>, <표 4>, <표 5>에서는 공적 뉴스 이용비율 차이 분석결과만 제시하고 개인적 흥미 뉴스 이용비율의 차이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개인적 흥미 뉴스 이용비율의 계산이 1-공적 뉴스 이용비율이므로 그 값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며 따라서 두 영역의 t값도 같기 때문이다.

〈표 4〉 방송사 뉴스사이트 이용자집단의 사이트 유형별 뉴스주제 이용비율 비교

	정치/경제/국제	의견	사회/문화/과학	연예/스포츠	공적 뉴스
방송사	.25	.02	.42	.31	.27
포털	.17	.11	.24	.46	.28
t값	1.26	-3.92***	2.60**	-2.24**	-.34

\*\*\*p&lt;.001, \*\*p&lt;.05.

〈표 5〉 오마이뉴스 이용자집단의 사이트 유형별 뉴스주제 이용비율 비교

	정치/경제/국제	의견	사회/문화/과학	연예/스포츠	공적 뉴스
오마이뉴스	.54	.43	.03	.01	.97
포털	.18	.23	.20	.39	.41
t값	2.40**	1.21	-8.70***	-5.39***	8.60***

\*\*\*p&lt;.001, \*\*p&lt;.05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의 경우, 비록 이용자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표 5>에서 보듯이 오마이뉴스 사이트에서는 공적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며, 포털사이트에서는 다른 사이트 유형의 이용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네 가지 주제를 고르게 이용한다. 특히 이 집단은 여타 집단에 비해 의견 뉴스 이용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포털사이트에서도 의견에 할애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은 뉴스 사이트 유형에 따라 뉴스 주제들에 할애하는 시간비율이 다르다. 중복이용자집단은, 종합일간지 사이트나 독립인터넷 뉴스사이트에서는 포털뉴스보다 정치/경제/국제 뉴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방송사뉴스사이트에서는 사회/문화/과학 뉴스를 더 이용한다. 반면에 사회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탐색하는 장소로는 주로 포털을 선택하며, 연예/스포츠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소 역시 포털사이트이다. 다시 말해 종합일간지, 방송사, 독립인터넷 등의 뉴스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때에 비해 공공 문제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시

간 비율이 높은 반면,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의견이나 연예/스포츠 관련 뉴스를 이용하는 시간 비율이 높다.

## 2) 뉴스 주제별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뉴스 주제별 이용량 예측요인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시민적 관여 요인, 그리고 뉴스 매체 이용 요인 등은 인터넷 뉴스 이용정도를 설명하는 데 대체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뉴스 전체 이용량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114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8.60$ ,  $p<.001$ ).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설명력은 .041이었고, 시민적 관여요인은 .016을, 뉴스이용요인은 .072를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세 요인의  $R^2$  변화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 전체 뉴스 이용량 설명에 기여한 변인은 성과 연령이었는데, 남성( $\beta=.112$ ,  $p<.001$ )이, 그리고 연령( $\beta=-.082$ ,  $p<.05$ )이 적을수록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관여요인 중에서는 정치관심( $\beta=.120$ ,  $p<.05$ )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스 이용요인에서는 뉴스 사이트 이용 유형( $\beta=.271$ ,  $p<.001$ )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공적 뉴스 이용량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표 6>에서 보듯이 세 요인의 설명력은 전체 뉴스 이용량에서보다 더 높아져 전체 변량중 1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9.62$ ,  $p<.001$ ).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남성( $\beta=.107$ ,  $p<.001$ ), 정치관심( $\beta=.091$ ,  $p<.10$ ), 뉴스 사이트 이용유형( $\beta=.293$ ,  $p<.001$ ) 등이었다. 전체 뉴스와 달리 연령은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개인적 흥미 뉴스 이용량에 대한 설명력은 6% 정도로 매우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예측변인의 패턴은 전체 뉴스 이용량과 유사하게 남성( $\beta=.098$ ,  $p<.05$ )이, 그리고 연령( $\beta=-.079$ ,  $p<.10$ )이 낮을수록, 정치관심( $\beta=.117$ ,  $p<.05$ )이 높을수록, 뉴스사이트들을 중복이용할수록( $\beta=.224$ ,  $p<.001$ ) 개인적 흥미 뉴스 이용량은 많아진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적 흥미 뉴스 이용량이 인터넷 뉴스 이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결과에서 이

<표 6> 전체 뉴스, 공적 뉴스, 개인적 흥미 뉴스 이용량 예측

		전체 뉴스 이용량		공적 뉴스 이용량		개인적 흥미 뉴스이용량	
		β	R <sup>2</sup> 변화량	β	R <sup>2</sup> 변화량	β	R <sup>2</sup> 변화량
인구 사회	남성	.112 <sup>***</sup>	.041 <sup>***</sup>	.107 <sup>***</sup>	.046 <sup>***</sup>	.098 <sup>**</sup>	.033 <sup>***</sup>
	연령	-.082 <sup>**</sup>		.054		-.079 <sup>*</sup>	
	교육수준	.047		.075 <sup>*</sup>		.050	
	소득수준	-.034		.011		.027	
시민적 관여	정치관심	.120 <sup>**</sup>	.016 <sup>**</sup>	.091 <sup>*</sup>	.013 <sup>**</sup>	.117 <sup>**</sup>	.015 <sup>*</sup>
	정치효능성	-.005		-.058		.019	
	정치참여	-.025		.031		-.047	
	의견지도자	-.002		.056		-.028	
뉴스 이용	신문열독량	-.040	.072 <sup>***</sup>	-.045	.084 <sup>***</sup>	-.032	.050 <sup>***</sup>
	TV뉴스시청량	-.025		-.007		.029	
	이용유형 (포털-중복)	.271 <sup>***</sup>		.293 <sup>***</sup>		.224 <sup>***</sup>	
수정된 R <sup>2</sup>		.114 <sup>***</sup>		.128 <sup>***</sup>		.062 <sup>***</sup>	

\*\*\* $p<.001$ , \*\* $p<.05$ , \* $p<.10$

미 예측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뉴스 주제별 이용량을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세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주제는 정치/경제/사회였다( $R^2=.128$ ). 세 요인 모두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는데, 인구사회학적적으로는 남성( $\beta=.138$ ,  $p<.001$ )이 그리고 교육수준( $\beta=.061$ ,  $p<.10$ )이 높을수록 이 주제의 뉴스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관여요인 중에서는 정치관심( $\beta=.132$ ,  $p<.001$ )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뉴스 이용요인에서는 뉴스 사이트를 중복이용하는 집단( $\beta=.271$ ,  $p<.001$ )이 뉴스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견뉴스 이용량에서도 세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의 설명력은 유의미했지만, 설명력의 정도는 정치/경제/사회보다 떨어졌으며, 특히 시민적 관여 요인에 속하는 변인들 중에는 유의미한 것이 없었다. 다른 주제들과 달리 성

〈표 7〉 뉴스 주제별 이용량 예측

		정치/경제/국제	의견	사회/문화/과학	연예/스포츠
인구 사회	남성	.138***	-.036	.092**	.083**
	연령	-.038	-.072*	-.026	-.083*
	교육수준	.061*	.056	.034	.020
	소득수준	.020	-.003	-.030	-.048
	R <sup>2</sup> 변화량	.055***	.020**	.026***	.027***
시민적 참여	정치관심	.132***	.015	.094*	.104**
	정치효능성	.065	-.030	-.036	.085
	정치참여	.056	-.009	.037	-.067
	의견지도자성향	.015	.036	.017	-.038
	R <sup>2</sup> 변화량	.017**	.007	.010	.015**
뉴스 이용	신문열독량	-.028	-.049	-.046	-.022
	TV뉴스시청량	.010	-.025	.00	-.034
	이용유형 (포털·중복)	.271***	.221***	.260***	.172***
	R <sup>2</sup> 변화량	.070***	.050***	.066***	.030***
	수정된 R <sup>2</sup>	.128***	.060***	.087***	.056***

\*\*\*p&lt;.001, \*\*p&lt;.05, \*p&lt;.10

의 예측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연령( $\beta = -.072$ ,  $p < .10$ )의 설명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의견기사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이용 요인에서는 뉴스 사이트를 중복이용하는 집단( $\beta = .221$ ,  $p < .001$ )이 뉴스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흥미 뉴스인 사회/문화/과학에 대해서도 세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으나, 그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역시 남성( $\beta = .092$ ,  $p < .05$ )이, 그리고 정치관심( $\beta = .094$ ,  $p < .10$ )이 높을수록, 포털이외의 뉴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 $\beta = .260$ ,  $p < .001$ )이 이용량이 많았다. 연예/스포츠에서 세 요인의 설명력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주제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예측패턴은 다른 주제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남성( $\beta = .083$ ,  $p < .05$ )이 연령( $\beta = -.083$ ,  $p < .10$ )이 낮을수록, 정치관

심( $\beta = .104$ ,  $p < .05$ )이 높을수록, 뉴스 사이트를 중복이용하는 집단( $\beta = .172$ ,  $p < .001$ )이 연예/스포츠 뉴스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주제별 이용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인터넷에서도 뉴스 주제와 무관하게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은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선택성이 부여되는 인터넷에서도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이용자 집단이 형성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량을 설명하는 데 유용했던 요인들은 인터넷에서도 역시 공적 문제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는 정치/경제/국제 뉴스 이용량을 설명하는 데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닐 수 있다. 또한 포털과 다른 유형의 뉴스사이트 중복이용이 뉴스주제와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 뉴스 이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한 변인이었는데, 이는 신문열독량이나 TV 뉴스시청량 같은 기존 뉴스 매체 이용이 인터넷 뉴스 이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 이용량을 설명하는 데 기존의 뉴스 매체 이용 보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이용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2) 뉴스 주제 이용비용 예측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시민적 참여 요인, 그리고 뉴스 매체 이용 요인 등이 인터넷 뉴스 주제 이용비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뉴스 주제 이용량에서는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지만, 주제별 이용비용에서는 이용자들의 차별성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전통적 뉴스 매체를 설명하는 데 유용했던 세 요인들은 다른 뉴스주제 이용시간비용을 예측하는 것 보다 정치/경제/사회에 할애하는 시간비용을 설명하는 데 유용했다. 남성( $\beta = .095$ ,  $p < .05$ )이, 그리고 연령( $\beta = .093$ ,  $p < .05$ )이 많을수록, 교육수준( $\beta = .120$ ,  $p < .001$ )이 높을수록 이 주제에 자신의 인터넷 뉴스 이용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시민적 참여요인은 이와 관련이 없었으며, 뉴스 이용요인 중에서는 TV뉴스시청량( $\beta = .091$ ,  $p < .05$ )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뉴스사이트 중복이용집단( $\beta = .126$ ,  $p < .001$ )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8〉 뉴스주제별 이용시간비율 예측

		정치/경제 /국제	의견	사회/문화 /과학	연예/ 스포츠	공적 뉴스
인구 사회	성	.095**	-.063	-.020	.021	.046
	연령	.093**	-.008	.093**	-.120***	.064
	교육수준	.120***	.025	.009	-.092**	.109***
	소득수준	.035	-.019	-.016	.003	.011
	R <sup>2</sup> 변화량	.058***	.002	.007	.026***	.028***
시민적 참여	정치관심	-.013	-.031	-.094*	.097**	-.034
	정치효능성	.019	-.041	.102	-.063	-.017
	정치참여	-.021	-.074	-.042	.089*	-.072*
	의견지도자성향	.079	.122**	-.013	-.110**	.152***
	R <sup>2</sup> 변화량	.08	.010	.007	.018**	.017**
뉴스 이용	신문열독량	-.067	.004	-.004	.040	-.047
	TV뉴스 시청량	.091**	.029	.021	-.052	.046
	이용유형 (포털-중복)	.126***	.040	.024	-.117***	.125***
	R <sup>2</sup> 변화량	.023**	.002	.001	.016**	.018***
수정된 R <sup>2</sup>		.073***	.003	.002	.044***	.047***

\*\*\*p&lt;.001, \*\*p&lt;.05, \*p&lt;.10

다음으로 세 요인은 의견 이용시간 비율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의견지도자 성향( $\beta=.122$ ,  $p<.05$ )만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인터넷 매체가 제공하는 독특한 유형인 이 주제는 공적 영역에 대한 직접 참여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두 가지 주제가 합쳐진 공적 뉴스 이용비율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교육수준( $\beta=.109$ ,  $p<.001$ )이 높을수록, 의견지도자 성향( $\beta=.152$ ,  $p<.001$ )이 강할수록, 그리고 포털과 다른 뉴스 사이트를 중복 이용하는 사람( $\beta=.125$ ,  $p<.001$ )이 공적 문제에 관한 정보와 타인 혹은 사회의 여론 탐색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함을 알 수 있다.

개인적 흥미 뉴스 중 사회/문화/과학은 세 요인이 유의미한 설명을 하지 못

했으며,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연령과 정치관심이었다. 연령( $\beta=.093$ ,  $p<.05$ )이 많을수록 그리고 정치관심( $\beta=.094$ ,  $p<.05$ )이 적을수록 이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예/스포츠의 이용시간비율은 다른 주제들의 이용자특성과 가장 차이를 보인 주제이다. 먼저 인구사회학적으로 연령( $\beta=-.120$ ,  $p<.001$ )이 적고 교육수준( $\beta=-.092$ ,  $p<.05$ )이 낮을수록 이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민적 참여 차원에서도 대조적인데, 정치관심( $\beta=.097$ ,  $p<.05$ )과 참여수준( $\beta=.089$ ,  $p<.10$ )이 높을수록 의견지도자성향( $\beta=.110$ ,  $p<.05$ )이 낮을수록 이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뉴스 사이트 이용 유형에서는 포털사이트만 이용하는 집단이 연예/스포츠에 할애하는 시간비율이 높았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합친 개인적 흥미 뉴스 이용비율은 공적 뉴스 비율의 예측결과를 역으로 해석하면 알 수 있다. 즉, 개인적 흥미 뉴스이용비율은 교육수준과 의견지도자 성향이 낮을수록, 정치관심은 높을수록, 그리고 포털만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높아진다.

이상의 결과는 인터넷에서 뉴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 특성에 따라 뉴스 주제별로 이용시간을 할애하는 비율이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주제는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연예/스포츠였다. 이 주제는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을 설명하는 요인들과 다소 혼란스러운 관계를 보여준다. 인구사회학적으로는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결과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듯이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예/스포츠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치관심과 정치참여는 그와 다른 결과를 형성한다. 두 변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연예/스포츠 이용비율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상 밖의 결과는 뉴스주제 이용량의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 뉴스주제 이용량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적 뉴스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은 연예/스포츠 뉴스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과 대체로 유사하다. 이는 공적 뉴스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은 연예/스포츠 뉴스 이용량 역시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문제는 주제별 이용시간 증가율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공적 뉴스 이용량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오락 뉴스 이용량이 증가함으로써 공적 뉴스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이 오락뉴스 이용비율 역시 높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터넷에서는 시민적 관여수준이 공적 뉴스 이용량과 오락뉴스 이용비율을 동일한 방향으로 예측하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 5. 결 론

전문적인 뉴스 생산자가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전통적 매체와 달리 인터넷은 그 평가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뉴스 매체다.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공공영역에 관해 제한된 정보와 시각만을 제공하는 전통적 뉴스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이용자들은 공공영역에 관한 정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그 선택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실제 뉴스 이용패턴을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는 후자의 예측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은, 전통적 뉴스 매체인 신문과 TV에서 뉴스를 접하는 시간에 비해, 인터넷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 적은 시간마저도 대부분 개인적 흥미를 다루는, 특히 연예와 스포츠와 같은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뉴스를 이용하는 데 소비한다. 이러한 경향은 포털사이트에서만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 거의 모두가 이용하고 뉴스 이용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포털사이트는 공공 문제에 관한 소식이 외면당하는 주요 공간이다. 수많은 언론사의 뉴스들을 세분화된 주제별로 분류하여 이용자들이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는 이용자들의 뉴스 선택권이 가장 강하게 보장되는 공간이다. 뉴스 매체로서 인터넷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이 공간을 이용자들은 공공 뉴스가 아닌 개인적 흥미 혹은 오락거리를 찾는 곳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포털사이트가 공적 문제에 관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공간이 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서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가 교환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이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알기 위해 활용하는 공간이다. 인터넷 뉴스 이용자 중 소수집단에 속하는 온라인독립 인터넷 이용자들은 예외적이지만, 오프라인 언론사 뉴스 사이트나 방송사 뉴스 섹션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타인들의 의견 탐색은 주로 포털사이트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뉴스 주제별 이용량 분석결과, 인터넷에서도 뉴스 주제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이용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뉴스 주제가 달라져도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구사회학적으로는 남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대부분 주제의 이용량이 많으며, 시민적 관여 차원에서는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뉴스 이용요인에서는 포털과 다른 뉴스 사이트를 중복 이용하는 집단이 이용량이 많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성을 발휘하기 힘든 전통적 뉴스 매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도 한 가지 주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주제들 역시 많이 이용함을 보여준다. 다만 연예/스포츠 뉴스 이용량이 압도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공적 뉴스에 가치를 부여하는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량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요인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주제는 역시 정치/경제/국제 뉴스였다.

이용량에서는 뉴스 주제에 따른 이용자 특성분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인터넷 뉴스 이용시간을 주제별로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차원에서는 이용자 특성이 다소 달라진다. 다른 이용자들에 비해 공적 뉴스에 자신의 뉴스 이용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용자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의견지도자 성향은 강한 반면, 정치참여 정도는 낮은 사람들이다. 또한 포털만이 아니라 다른 뉴스 사이트도 중복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이에 반해 인터넷 뉴스 이용량의 가장 많은 시간을 연예/스포츠에 할애하는 사람들은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낮다. 시민적 관여 차원에서는 정치관심과 정치참여 수준이 높고 의견지도자 성향은 낮은 사람들이며, 뉴스사이트 중에는 포털사이트만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이상의 결과는, 인터넷 뉴스 이용에서 이용자 특성분화는 이용량 그 자체보다는 주제별 이용시간 비율 차원에서 나타남을 시사한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시민적 관여 요인의 경우, 뉴스 주제에 따라 변인별 예측방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인터넷에서 정치, 경제, 국제 뉴스 이용과 의견 탐색에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의견지도자 성향이 높은 반면, 직접적인 정치 참여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이는 인터넷에서 공적 뉴스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시민적 관여 수준과 맺는 관련성이 전통적 뉴스 매체, 특히 신문의 그것과 다른 측면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뉴스 주제 선택이 용이한 인터넷에서는 시민적 관여 차원에서도 이용자 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뉴스 주제에 따라 정치관심, 정치효능성, 의견지도자 성향으로 구성된 정치정향 차원과 직접적인 정치참여 차원의 관계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뉴스 주제별 이용정도 결과 예측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는 포털사이트다. 포털사이트만을 통해 인터넷 뉴스를 접하느냐 아니면 다른 유형의 사이트들을 함께 이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주제별 뉴스 이용량과 이용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주제의 뉴스 이용량이 적으며, 그 적은 시간을 개인적 흥미 거리에 집중적으로 할애한다. 이는 저널리즘 매체로서 인터넷을 자리매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포털사이트로만 뉴스 이용이 집중되고 다양한 유형의 뉴스사이트들에 대한 이용은 약화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포털사이트처럼 이용자의 선택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제 못지않게, 윤영철(2001)이 주장했던 바처럼 인터넷에도 “들을 책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의 실제 뉴스 이용행위 자료를 토대로 뉴스 주제별 이용도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이 연구는, 인터넷에서 공적 뉴스 기피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인터넷 뉴스 이용자 집단에 공통적으로 나

타나며, 무엇보다도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 이용이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킴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대상에 인터넷 뉴스 사이트들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유형의 뉴스사이트들을 중복이용하느냐가 뉴스주제 이용패턴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독립 뉴스사이트의 경우, 이 연구를 통해 뉴스주제 이용패턴이 여타 집단과 차별적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에 포함된 이용자 수가 너무 소수여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표본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뉴스 주제 분류 방식이 다소 임의적이었다. 물론 이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한계이긴 하지만, 전통적 뉴스 매체, 특히 신문의 주제 분류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인터넷만의 고유한 뉴스 양식, 예를 들면 블로그형 기사, 동영상 기사 등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뉴스 주제별 이용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인들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뉴스에 가치를 두는 전통적 뉴스 매체 이용 설명에 유용했던 변인들만으로는 인터넷에서 공적 뉴스 이용정도를 설명하는 데, 그리고 다른 주제들의 뉴스 이용정도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 강내원(2004). 인터넷과 대중 매체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대집단간 비교. 『한국언론학보』 48(3), 116~143.
- 김세은(2006). 시사분야 의견지도자 성향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1) 91~114.
- 박광순·안종묵(2006). 포털사이트 프론트(front)페이지 뉴스의 특성에 관한 연



- 구. 『한국언론학보』, 50(6). 199~226.
- 박선희(2002). 인터넷 이용자의 뉴스 생산 참여: <오마이뉴스> 사례연구. 『한국언론학보』, 16(2). 149~177.
- 박선희(2004). 인터넷 정치뉴스 이용: 이용패턴과 이용자 특성. 『한국언론학보』, 48(3), 436~463.
- 박선희(2006).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연구』. 신문발전위원회.
- 반현 · 권영순(2007). 포털뉴스와 기존 매체 이용행위에 대한 상관관계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1(1), 399~426.
- 성동규 · 김인경 · 김성희 · 임성원(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 콘텐츠 전략에 관한 연구: 인터넷 뉴스의 이용동기와 지각된 뉴스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5). 132~159.
- 윤영철(2001). 『한국민주주의와 언론』. 서울: 유민.
- 임종수(2005). 포털미디어 재매개에서의 뉴스소비: 하나의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19(2). 8~45.
- 최민제 · 김위근(2006).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4), 437~463.
- 코리아클릭(2006. 6월). 미디어 사이트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포털뉴스 사이트 이용행태.
- 한혜경(2001). 웹사이트 방문패턴에 관한 연구: 방문자 동질성 수준과 재방문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1), 517~555.
- 한혜경 · 이상기 · 오창호(2006). 지역뉴스 이용과 지역 정치 참여: 지역 뉴스 주목도와 신문구독 유형이 부산 시민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0(5). 384~408.
- 황용석 · 윤선희 · 이원섭 · 안계현(2006). 『2006 한국의 인터넷신문』. 한국언론재단.
- Crag, S. C., Niemi, R. G., & G. E. Silver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o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12(3), 289~314.
- McLeod, J. M., Daily, K., Guo, Z., Eveland, W. P., Jr., Bayer, J., Yang, S., & H., Wang(1996). Community integration, local media use, and democratic processes. *Communication Research*, 23(2), 179-209.
- Miller, M. M & S. D. Reese (1982). Media Dependence as Interaction: Effects of Exposure and reliance on political activity and efficacy. *Communication Research*, 9(2). 227~248.
- Neuman, R. (2001). The Impact of the New Media, In W. L. Bennett & R. M. Entman (Eds), *Mediated Politics: Communication in the Future of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9~320.
- Norris, P. (2000). *A Virtuous Circle: Political Communication in Postindustrial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w Research Center (2006). *Maturing Internet News Audience-Broader than Deep: Online Papers Modestly Boost Newspaper Readership*.  
<http://www.people-press.org/reports/display.php3?ReportID=282>.
- Poindexter, P. M. & M. C. McCombs(2001). Revisiting the Civic Duty to Keep Informed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JEMC Quarterly*, 78(1), pp.113~126.
- Scheufele, D. A, & , J. P. Eveland(2000).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and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1), 25~44.
- Scheufele, D. A, Nisbet, M. C., & D. Brossard.(2003). Pathways to Political Participation? Religion, Communication Contexts, and Mass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5(3). 300~324.
- Stempel, G. H, 3rd, Hargrove, T., & J. P. Bernt (2000). Relation of Growth of Use of the Internet to Changes in Media Use from 1995 to 1999. *Journal of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1), 71~79.

- Tewksbury, D. & S. L. Althaus(2000). Difference in Knowledge Acquisition among Readers of the Paper and Online Version of a National Newspaper. *Journal of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3). 457~479.
- Tewksbury, D. (2003). What Do Americans Really Want to Know? Tracking the Behavior of News Readers on th Internet. *Journal of Communication*, December. 694~710.
- Webster, J. G. & L. W. Lichty (1991). *Rating Analysis: Theory and Practic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최초 투고일 2007년 7월 20일  
게재 확정일 2007년 8월 25일

## A Study on the Internet News Topic Use Pattern and Users' Characters.

Han, Hye-Kyoung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ark, Sun-Hee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opics people select at online news outlets and users' characters affect use patterns of topics. Survey of 650 Internet users was conducted, and their logging data about use time of four news topics on the various online news sites(4 portal sites, 4 online sites of offline newspapers, 3 online sites of offline broadcastings, 1 Internet-only news site)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Internet news users do not select public affairs news as often as personal interest or entertainment news. This tendency appears more strongly in Internet users visit only portal sites for news reading. They spend 72% of total Internet news use time in reading personal interest and entertainment/sports news. Internet provides users with more control over news topic selection process, but Internet news users have similar

characters(demographic characters, civic involvement level, and news media use type) regardless of news topics. Users spend much time in reading public affair contents also read much entertainment/sports contents. However, how much time of total news reading time users allocate to each topic is different by users' characters. Education and opinion leadership positively affect the high level of public affair news' use time rate. But political participation negatively affect that. This results suggest the relation of civic involvement and new uses in Internet is more complicated than in traditional news media.

Key Words: Internet News use. News Topics,  
Users' Characters